

환경부 장관, “국내 생산 전기상용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 김성환 장관, 현대차 전주공장 찾아 국내 생산 전기 상용차 보급 활성화 논의
- 전기 상용차 제작·보급 상황 점검 및 제작사 의견 청취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24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전북 완주군 소재)을 방문해 전기 상용차 제작·보급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생산 전기 상용차 보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5년 차량 생산을 개시한 이후 2017년 첫 전기 버스(일렉시티)를 출시했고, 지난해(2024년) 5월 생산라인을 개선하여 연간 전기 버스 생산(계획)량을 약 2.5배(1,450대→3,600대) 늘리는 등 전기 상용차 생산 역량을 강화해 왔다. 단일 규모 세계 최대의 전기 상용차 공장으로 전기 및 내연 버스·트럭 등 총 17종의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목표(450만대)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노력 및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내 생산 전기 상용차 보급의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는 약 84.5만대가 보급됐으며, 2023년 이후 다소 둔화됐던 전기차 보급 수요는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수소 버스는 수요 둔화 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버스 12,830대 가운데 국산은 59.6%, 수입산은 40.4%를 차지한다.

* '25.6월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는 약 9.5만대, '24년 동기(6.6만대) 대비 약 44% 증가

** (전기버스) ('22) 2,074대 → ('23) 2,820대 → ('24) 3,611대 → ('25.6월) 1,179대
(수소버스) ('22) 152대 → ('23) 368대 → ('24) 1,044대 → ('25.6월) 524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산업은 국가경제를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며, “국내 전기 상용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내 생산 전기 상용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현장방문 계획.
 2. 전기차 보급 현황('25.6월 기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 개 요

- (시간) '25. 7. 24.(목), 15:40~16:40
- (장소) 현대차 전주공장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62)
- (참석자) 환경부 및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 (환경부) 장관, 전북지방환경청장, 대기미래전략과장,
 - (현대자동차) 부사장, 전주공장장 등
- (목적) 전기 상용차 생산 현장 점검 및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

□ 세부 일정(안)

시간(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5:40~15:45 (5')	• 상호인사	참석자
15:45~16:10 (25')	• 전주공장 소개 (브리핑)	현대차
	• 전기 상용차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	참석자
16:10~16:40 (30')	• 전기 상용차 생산 현장 견학	참석자

※ 세부일정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전기·수소 상용차 보급 현황** ('25.6월 기준)

구 분	보급실적					누적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전기차	238,063	164,486	162,605	146,902	93,549	805,605
승 합	3,146	2,074	2,820	3,611	1,179	12,830
화 물	43,036	38,471	43,940	20,581	12,053	158,081
수소차	19,477	10,256	4,673	3,784	1,287	39,477
승 합	131	152	368	1,044	524	2,219
화 물	5	-	5	5	-	15
청 소	-	-	6	18	2	26

※ 국토교통부 신규 등록대수 기준